

# 정보화 사회에서도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

인쇄업체 중 정보화 선두기업인 한진피앤씨(대표이사 이종소)는 지난 7월 15일 오전 7시30분부터 9시까지 김포대학 윤경배 교수를 초청,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의 환경 변화 이해 및 우리들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정보화에 대한 전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다음은 이날 윤경배교수의 강연 내용이다. <편집자 주>

우리는 21세기를 흔히 '정보화 사회'라 말한다.

컴퓨터는 이미 우리들의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렸으며, 컴퓨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현대의 생활을 완전히 영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마치 정보화 사회하면 컴퓨터가 모두인

것처럼 잘못 해석할 수 있다. 컴퓨터는 정보화 사회의 중요한 수단이지 전부는 아니다. 정보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중한 우리 자녀들에게 컴퓨터의 기능보다는 정보를 소중히 다루는 습관(메모하는 습관, 정리정돈...)을 가지게 해야한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쇼핑센터를 가게되는데 미리 살 물건을 메모하여 쇼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마도 10%~20% 정도일 것이다.

옳은 정보란 개인이나 조직에서 필요로하는 자료를 말한다. 그리고 정보화 사회란 우리가 필요로하는 자료를 전자매체(컴퓨터+네트워크)를 통하여 저장·보관·활용하는 과정을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나는 가끔 친구집에 놀러가면 거실 책장에 정돈되어 있는 많은 책들을 보게되는데 꼭 물어보는 말이 있다.

“이 책들을 자주 보는 것이냐”하고 물어보면 친구는 “2~3년 전에 산책인데 바빠서 한번도 읽지 못했어”라고 말한다. 그러면 빨리 버리라고 한다.

왜냐하면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책은 이제

쓸모가 없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설명한대로 올바른 정보화 사회의 개념 및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요약해 보겠다. 첫째,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발전함에 있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은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옳은 정보를 소중히 여기는 풍토가 필요하다.

둘째, '정보화 사회'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의 관습이나 행위에 대하여 올바른 것은 계속해서 지켜나가되 권위적인 것이나 불필요한 지식은 없애고 새로운 것을 받아드려야 한다.

셋째,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정보화 교육이 필요하다. 실례를 들면 컴퓨터 게임을 잘한다고 컴퓨터를 잘 활용



윤경배 교수

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오라 생각한다.

또한 부모가 공부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공부하라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 따라서 부모가 먼저 컴퓨터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자녀들은 보고 느끼면서 부모를 존경하고 정보화 사회를 올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넷째, 정보화 사회는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기능 교육에서 창의적, 응용적, 업무연계 가능한 교육으로 전환하여 능동적이고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다섯째, 회사에서는 구성원들의 경험과 지식을 데이터베이스화(지식창출 이라 함)하여 의사결정에 적용(지식경영 이라 함)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주민, 산업체 및 유관기관 등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올바른 정보화 문화를 형성해 나아가야 할 것이며, 문화생활 정보화를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산업체/농축산물/특산물 정보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정보화를 통한 지방자치 행정의 효율화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먼저 전자우편(e-mail)주소 갖기 운동, 도메인 찾기 운동, 가족(개인) 홈페이지 만들어보기를 하면 어떨까? 그리고 가장 잘 만든 가족(개인) 홈페이지에 우리들의 정성이 담긴 메모를 남기면 어떨까? '정말 멋있어' 라고.

〈조갑준 기자〉

종이 상식

**여름철 인쇄용지 관리요령**

**종이! 여름엔 웨이브에 민감하다?**

젖은 비로 인해 습도가 높은 여름철엔 종이의 웨이브(Wave) 발생이 급격히 증가한다. 왜 그럴까?

2002년 기상청 기후자료에 의하면 1~4월까지 겨울 및 봄철의 평균 대기습도는 54%RH이고 여름철인 6~9월의 평균 습도는 72%RH로서 약 18%RH의 습도 차이를 나타낸다.

이러한 기후특성은 여름철 인쇄용지 취급시 웨이브를 유발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쇄용지가 가지고 있는 습도는 45~55%RH 수준이다. 만일 여름철에 비가 내린다면 대기습도는 80%RH 이상으로 높아져 인쇄용지가 가지고 있는 습도와는 25~35%RH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에 따라 인쇄용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대기의 습도를 흡습하게 되어 빈번하게 대기와 접하는 용지 단면부와 대기와 접하지 않은 내부의 습도 차이에 의한 신율 차이로 용지단면부에 잔물결 모양의 웨이브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웨이브를 예방하는 방법은 없나?**

먼저 높은 대기습도를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적의 인쇄작업실 조건(온도 20℃, 습도 50~60%RH)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인쇄환경이 그렇지 못하다면, 특히 우천시에는 웨이브가 발생되기 쉬우므로 포장을 뜯은 후 바로 인쇄하거나 작업중이 아닌 용지는 비닐로 포장해 두는 것이 좋다.

종이를 적재중이거나 인쇄, 재단, 제본할 때도 인쇄물은 비닐로 덮어 보호해 주고 제본소나 가공소로 이동할 때도 비닐이나 커버로 보호해 주어야 한다.

웨이브가 발생된 용지는 적정 온도 및 습도(20℃, 50~60%RH)에서 일정시간 보관한 후 사용하고 포장지가 파손된 제품은 테이프로 접착해 주거나 랩으로 씌워 주는 등의 사전 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히 150g 이하의 저 평량은 습도에 더욱 민감하므로 매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용지를 장시간 커버 없이 방치하지 말고 작업이 끝난 제품은 비닐로 포장해 보관해야 한다.

〈자료제공 : 신무림제지 YES CENTER〉